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- “북한관계 저작권 처리작업 할기”—민간 ‘공동위’ 곧 출범…문공부 ‘심의위’ 심포지엄 / 중복출판 등 ‘교통정리’ 기구 설치 의견도(한겨레신문 4월16일 신연숙기자)
- “내 아들이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” 서점가 휩쓸어—200년전 한 영국인이 쓴 교양서 / 요즘 한국 현실과 유사… 중복출판 비판도(세계일보 4월16일)
- “회화타임즈 등 교재개발…교육에 큰 획”—창간 30周年 「시사영어 연구」 閔泳斌 회장 / ‘캠퍼스 없는 대학’ 새로운 면모 다짐 / 교사대상 어학연수 자질향상 도와(매일경제신문 4월17일 李奉湖기자)
- “范範圖 장군 요약 자서전 蘇서 발견—학설 엇갈렸던 출생지 평양으로 확인 / 1894년 의병 시작…1921년 제5군여단장 임명돼(동아일보 4월17일)
- 원본 全文 실은 「白凡逸志」출간—종래 축약본보다 원고 600여장 많아(동아일보 4월17일)
- “思慮 · 통찰로 극좌 · 극우 극복”—「헤겔철학총서」 4권 펴낸 林錫珍 교수 / 민주화시대 주장 올바른 논리로 / 젊은 층 근현대사 관심은 민족자각서(경향신문 4월17일 安健燮기자)
- 여성관련 출판물 2종 출간—무크지 · 論集, 노동현실 · 농민문제 등

- “活字탈피…다양해진 출판”—창작곡집 출간한 작곡가 卞圭白씨… “젊은이 위한 노래 쓸 의무감” / 시사만화책 펴낸 만화가 崔正鉉씨… “통일정책에 변화 없어 섭섭”(한국일보 4월18일 徐華淑기자)
- “재복작가 저작권 국내법 따라야”—호적 없으면 외국인 준해 / 가족 있을 때는 권리행사 / 별도 관리 기구 설치엔 양론(한국일보 4월18일)
- “詩 쓰는 소설가, 소설 쓰는 시인 늘어”—장르구분, 없애자…신선한 충격 / 출판사 잇단 기획…새바람 이끌어 / 朴景利 · 李文求 · 高銀 · 金正煥 · 정동주 등(서울경제신문 4월18일 姜升遠기자)
- 이데올로기 잔혹성 고발, 동구권 문제작 소개 활발—문단 · 대학가에 신선한 바람 / 베를린장벽 · 프라하 침공 등 배경으로 / 냉전체제 속에 비뚤어진 사회구조 비판 / 분단 등 우리와 흡사…영 · 불어권 일련도 탈피해야(세계일보 4월18일 梁憲錫기자)
- 정치풍자 소설집시대 활짝—6월 예정 이후 문단 ‘각성’ 반영 / 월 · 계간문예지 발표작품의 대부분 차지 / 민주화 꺼리는 사장 · 큰손 · 군부 등 다뤄(한겨레신문 4월18일 조선회기자)
- 외설출판물 1년새 3배 급증—서점에 버젓이…청소년 정서해쳐 / 성도덕 문란 · 인간성 파괴 등 우려(서울신문 4월19일 柳相德기자)
- “외국소설 홍수”—공산권 작품 등 주류…거의 장편 / 번역분…단행본도 최근 20여권 / 80년대 중반이후 국내소설 부족 큰 원인(한국경제신문 4월19일 朴聖姬기자)
- “씨울의 소리” 통권100호—70년

- 4·19에 창간…19년 동안 두번 폐간 / 유신 때 가장 탄압…삭제 거듭 / 故咸錫憲 이어 金容駿씨 새 발행인으로(한국일보 4월19일)
- 출판가—趙錫晉 · 安中植 화집출간 / 20세기초까지 활동 他작가 15명 작품도 수록(한국경제신문 4월19일)
- “崔仁勳문학 재조명 활발”—30년전 분단속 지식인고뇌 표출 / 「廣場」 개정판 · 대표작집출간 / 침묵 10년만에 산문집 「길에 관한 명상」 펴내(중앙경제신문 4월19일 朴海鉉기자)
- 소설집 「원숭이는 없다」—작가 尹厚明 등단 10년작 / 長文의 후기 게재…소설관 피력(중앙경제신문 4월19일)
- 음란도서 추방운동 활발—전시회 전단배포 등 통해 경각심 일깨워(동아일보 4월19일 鄭星姬기자)
- 컴퓨터 출판시대—집필도 조판도 척척 / 원고지 대신 디스켓 사용 필자 계속 늘어 / 글자체 경쾌 젊은 층 선호…기술보완 과제(한겨레신문 4월20일 신연숙기자)
- 르클레지오 작품출간분—프랑스 형이상학소설 국내서 큰 인기 / 인간소외 다룬 「조서」 등 5권 나오자마자 불티 / 고발문학 식상한 독자들 “독특한 펜—카메라문체 매료”(스포츠서울 4월20일 박찬기자)
- 출판무법자…베스트셀러 “제목표절”—他社소설 잘 팔리자 영똥한역서에 同名표제(조선일보 4월21일 崔球植기자)
- 양서보다 베스트셀러 만들기 경쟁—4천여곳서 한해 4만종 출간 / 제대로 된 國史사건 한결 없어(서울신문 4월21일 李憲淑기자)
- 「브리태니커사전」 협의차 내한한—사장 피터 노튼씨 / 북한판도 제작

- 교류 됐으면(한국일보 4월22일 徐華淑기자)
- 개정 과학책—일본것 그대로 베껴 / 과학교과연구회분석 개념 억지주입 · 환경교육 무시 / 과학철학결여…교사참여 현장성 살려야(한겨레신문 4월22일 이재혁기자)
- 시 · 수기서 소설로 확산—문단 관심끄는 노동문학 / 노사분쟁 주제 현장감 생생 / ‘이름있는 신인들’ 작품 쏟아져(동아일보 4월22일 高美錫기자)
- 삶속에 녹아든 진솔한 사랑의 노래—金初蕙시집 「사랑굿」 / 상투적 감상배제, 보편적 가치추구 / 현실속 성숙해지는 인간성 보여줘(세계일보 4월23일)
- “발간 20일만에 베스트셀러 경증”—대중가요 작사가 金美善의 처녀시집 「편지」(경향신문 4월24일 安健燮기자)
- 국내 最古문학지 「竹筍」의 파수꾼—6월23호 출간준비에 바쁜 대구 토박이 시인 李潤洙翁 / 46년1월 창간…집에서 혼자 제작 / 具常씨 등 동인 47명…필자들은 고료 안받아(세계일보 4월25일 劉仁華기자)
- “한국문학, 중국에 상륙”—「當代문학총서」 중국어로 번역 / 30권 규모…7월 제1권 출간 / 최인호의 「천국의 계단」 등 수록…한국작가 초청도(한국경제신문 4월25일)
- 金日成실체 객관집근—徐大肅교수 「北韓지도자 金日成」출간 / 권력투쟁—주체사상분석 「정치연구서」 / ‘가짜론’ 규명위해 미 · 일 등 자료충동원 / 家系 · 出生 · 오늘까지의 모든 행적 정면해부(조선일보 4월25일 崔球植기자)
- “베스트셀러=명작” 편견버려야—‘오늘의 문학독서 무엇이 문제인가’ 任軒永씨 주장 / 청소년 권장도서

- 외국서적 일색 / 한해 4만종출간…서평지1개뿐(서울경제신문 4월25일 姜升遠기자)
- 월북학자저술 재출간활발—崔益翰의 「실학과와 丁茶山」 등 5권 / 민족중흥성 회복에 기여할 듯(한국일보 4월25일 徐華淑기자)
- 2개 사진월간지 창간—인물사진 잘 찍는 법과 기계소개…「인상사진」 / 초보자와 전문가대상의 대중지…「사진예술」(한국일보 4월25일)
- “詩 아닌 詩” 불티나게 팔린다—대중가요 가사 · 대학가 낙서집 등 / 난해한 실험시에 대한 반작용 / 서정성 회복시급… 시단에 반성론 일어(중앙일보 4월26일 李京哲기자)
- “유사제목 · 제호 출판물 범람”—대부분 베스트셀러 베껴먹기 / 상표등록하면 피해보상 기능 / 「마루타」 「마루따」 법정소송까지 갈 듯(중앙경제신문 4월28일 金龍善기자)
- 현장근로자 작가 이수광 이색소설, 「악마찾기」—화성연쇄 살인사건 추적, 중학중퇴한 보일러공 / 사회병리 충격받고 작년부터 집필 / 말미엔 범인에게 동기묻는 편지도(스포츠서울 5월1일 박찬기자)

우리 시대의 뛰어난 이야기꾼
이문열이 장편 대하소설로 그려낸

변경

제 I 부 不妊의 세월
李文烈 長篇小說

‘우리 시대의 거대한 벽화’

6·25로부터 자유당의 부정 · 부패, 극우 세력의 음모와 중동, 민중들의 고난과 항거, 3·15 부정 선거, 4·19 혁명, 5·16 군사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이어지는 사회 혼란과 민중 수난의 ‘不妊의 세월’이 작가의 유장한 문체로 펼쳐지는 대모양!

●제 I 부 不妊의 세월(전 3권)
· 크라운판 · 330면 내외 · 값 3,800원(각권)

338-7222 文學과知性社
~5

오너드라이브 百科 6권

환상의 드라이브 코스

1~4권 崔東旭著

1권 서울근교편
2권 영동편
3권 호남·제주편
4권 서울근교 남쪽편

각권 3,400원

도서출판 **남**
서울 · 강남구 서초동 1625-11호 ☎ 587-2051~4

전국의 베스트셀러

(스포츠서울 발표 3월 26일 ~ 4월 8일)

인간생체실험 現場秘話

충격실화 마루타

鄭賢雄 장편실화소설

우리시대 인간의 도덕성을 되찾기 위한 구도적 대하소설

3,500원

도서출판 **다나**
DANA PUBLISHING CO.
서울 · 종로구 청진동 11-3 천지빌딩 301. 2호
734-1241 · 1242 · 1243

잃어버린 너

金潤姬 장편체험소설

자존심이 강한 여자, 그러나 남자에 순종한 여자, 운과 팔자를 거부하는 여자, 사랑하는 마음과 정을 떠나서는 살수 없었던 아름답고 지적인 무용여교사의 감동체험기(논픽션), 3,000원

도서출판 **다나**
DANA PUBLISHING CO.
서울 · 종로구 청진동 11-3 천지빌딩 301. 2호
734-1241 · 1242 · 1243